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창세기 10 주사 (4:3-15)
(2016년 2월 21일 - 2016년 2월 27일)
(제4권 10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4 권-제 10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2 월 2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볼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믿음 (주입)

오늘의 본문 (창 4:3~5)

- (3 절) 시간이 지나고,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וַיְהִי מִקֵּץ יָמַי וַיָּבֵא קַיִן מִפְּרִי הָאֲדָמָה מִנְחָה לַיהוָה)
- (4 절) 아벨 그도 역시 그의 양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 부분 중에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וַהֲבִיל הַבְּיָא גַם־הוּא מִבְּכֹרוֹת צֹאֲנוֹ וּמִחֵלְבֵנוֹ)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유심히 보셨고, (וַיִּשַׁע יְהוָה אֶל־הֶבֶל וְאֶל־מִנְחָתוֹ)
- (5 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유심히 보지 않으셨습니다. (וְאֶל־קַיִן וְאֶל־מִנְחָתוֹ לֹא שָׁעָה)
가인은 매우 화가 났고, 그의 얼굴을 떨구었습니다. (וַיִּחַר לִקַּיִן מְאֹד וַיִּפְּלוּ פָּנָי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성경은 그들의 나이나 자라온 배경 등은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다. 오직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물을 가져왔다. 반면, 아벨은 그의 양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 부분 중에서 제물을 가져왔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이야기는 인류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다. 알다시피 그들의 부모가 선악과를 먹은 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화목하는 방법으로 화목제를 원하셨다. 왜 화목제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 화목 제물로 삼을 것 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부른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가인은 물론 아벨도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계획을 알았을 리 만무하다. 단순하게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아벨은 운이 좋았을 뿐이고, 가인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었다. 둘 중 그 누구도 제사를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이 제물로 드려졌을 뿐이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그랬기에 자신이 피땀흘려 일군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양을 쳄기에 양을 제물로 드렸다. 그들의 제사를 받고 말고는 오직 하나님 소관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해야 하는지 지시하셨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제물의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은 억울할 만도 하다. 솔직히 양을 치는 것 보다는 농사짓는 일이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가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제물은 물론 가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만 유심히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외면하셨을까?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적고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히 11:4).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다. 결국 믿음 때문이다.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테이’(πιστει)는 ‘믿음 안에서’라고 번역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의한 믿음은 인간이 가진 의지나 열정이 아니라 인간 외부에 있는 실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인간이 아무리 호랑이를 꿈이라 믿는다 해도 실제로 호랑이가 꿈이 될 수는 없다. 꿈은 꿈이고 호랑이는 호랑이다. 이처럼 인간이 어찌 할 수도 없고, 인간에 의해 변화될 수도 없는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믿음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 장에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으리지 못하더니 그리그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저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3~25).

25 절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을 직역하면 “그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다. 믿음은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실체다.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의롭게 된 자라 믿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아벨 때문이 아니라 피흘린 양 때문이다. 제사를 열납하는 기준이 가인이나 아벨의 성품에 달려 있지 않다. 사실 가인이 더 악하고 아벨이 더 선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일 뿐이다. 그 부모로 인해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했다. 그것이 제사다. 그들이 드린 제사의 유효성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는 언질조차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랬기에 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벨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물론 그 운이 이 세상에서 별로 오래가지 못했지만 말이다.

아벨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 내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모두 제물을 드리고는 긴장했을지도 모른다. ‘정말 내가 제대로 드린 건가?’ 모르긴 해도 가인이 좀더 당당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신이 드린 제물에는 자신의 땀과 정성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인은 자신의 노력, 애쓰음을 듬뿍 담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반면, 아벨은 양 한마리를 잡아 기름 부위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손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죄인들은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내세우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나간다. 어찌다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달할 것 같으면 돈이라도 들고 나간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열납되기 위해서 말이다. 반면, 어떤 이는 빈 손으로 나온다. 세파에 찌들려 너털 너털해진 몸뚱아리만 질질 끌고 나온다. 어찌 보면 뻔뻔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자를 의롭다 하신다. 누가복음 18 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나의 노력, 나의 의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야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혹시 당신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의 분노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3~5)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가인과 아벨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사 사건을 기점으로 둘은 심각한 갈등 관계로 변한다. 엄밀히 말하면 이 갈등은 가인에게만 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없었다. 당시 가인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났고, 그의 얼굴을 떨구었습니다”(창 4:5).

우리는 가인이 왜 그랬는지 알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다. 가인이 느꼈을 소외감, 거절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모를 것이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 처한 가인을 옹호하거나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 묻고 싶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거나 도리어 상황이 더 나빠질 때 당신은 하나님께 분노한 적이 없는가?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아마도 당신은 맹목적 신앙인이거나 자아 도취형 신앙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맹목적 신앙인이란 말씀을 단지 표피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을 말한다. 무조건 가인은 나쁘고 아벨은 좋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자신은 늘 아벨 쪽이라 믿는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렇게 표피적으로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 강하게 선포하기도 하고 드물게는 직접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보여주시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인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렇기에 가인이 분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맹목적 신앙인은 그런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고 철저히 타자가 되어 가인에게 분노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서 단지 도덕적인 교훈 정도만을 얻을 뿐이다. ‘분을 내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다.’ 등등.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런 도덕적 교훈에만 머무를 뿐일까?

한편 자아 도취형 신앙인은 절대로 자신은 가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일상 생활 속에서 자신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굳게 확신한다. 사실 겉으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자기만큼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한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히 신앙인의 기본 윤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애쓴다.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헌금도 열심히 한다.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리더라도 절대로 헌금을 거르는 법이 없다. 누가 보아도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다. 이 정도 되면 어떤 누구라도 이런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분은 교회에서 늘 칭찬과 모범의 대상이 된다. 물론 주요한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과 인정은 자신의 본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점점 가리게 만든다.

가인도 그랬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 원래 농사라는 것이 그렇다. 최선을 다해 땅을 일구지 않으면 안 된다. 땅은 정직하다. 땀을 흘린 만큼 결실을 맺는다. 그만큼 냉정하다. 땀흘려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땅에겐 은혜란 없다.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결국 그 저주는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담의 첫아들 가인이다. 가인은 땀흘려 일해야만 했고 그것은 그의 운명이었다. 그는 저주받은 땅을 자신의 땀으로 달랬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실이니 얼마나 소중했겠는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최선을 다했다. 예수님과 갈등을 빚은 것도 모두 율법 때문이었다. 그들은 율법을 매우 엄격하고 촘촘하게 해석했다. 인간들이 쳐놓은 율법의 그물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번번이 걸려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들을 자주 고치셨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과격분자로 보였을 것이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서 보려한 가인과 너무도 꼭 빼닮았다. 그런 그들을 보기 좋게 한방을 먹이는 예수님은 그들에겐 눈엣가시 같았을 것이다. 가인이 저주받은 땅을 갈아 결실을 얻고자 노력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저주받은 육신을 갈고 닦아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려 했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이르러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0).

인간이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노력을 통해 뭔가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노력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는 순간 그 모든 노력들은 저주가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어떤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희생 제물만이 필요하다. 그 희생 제물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우리는 빈 손으로 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예수님이 100이고 우리는 0이다.

그렇기에 선하게 보이는 모든 행위로 칭찬받거나 인정받으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또한 그런 노력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화낼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몰라준다고 야속해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들이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 가인은 하나님의 이런 예비하심을 몰랐다. 그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평가받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만들어 낸 그 노력의 결실들을 철처하게 무시하셨다. 그 때문에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났다. 자기의 노력을 끝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가? 가인의 분노를 보며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혹시 당신의 노력이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 야속해 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까?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6~7)

- (6 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יְהוָה אֶל־קַיִן)
너는 왜 화났느냐? (לָמָּה חָרָה לָּךְ)
왜 네 얼굴을 떨구었느냐? (וְלָמָּה נָפְלוּ כְּפָנֶיךָ)
(7 절) 네가 선을 행한다면, 네가(네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הֲלוֹא אִם־תֵּיטִיב שְׂאֵת)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엮드려 있고
(וְאִם לֹא תֵיטִיב לְפֶתַח חַטָּאת רֹבֵץ)
그죄의 갈망함(욕망)이 네게 있을 것이다. (וְאֵלֶיךָ תְּשׁוּקָתוֹ)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וְאַתָּה תִּמְשָׁל־בּוֹ)

묵상을 위한 질문

“너는 왜 화가났느냐? 왜 네 얼굴을 떨구었느냐?” 네가 선을 행한 다면 네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분을 삭이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씩씩대고 있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화를 낼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며 가인을 달래려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가인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감정적 표현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온통 자기 자신만 있다. 가인은 그것을 부정당했다.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땅에다 쏟아부었다. 그랬기에 그가 준비한 제물은 곧 자기 자신이었다.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다. 그 일로 그는 분개했다. 그런데 그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자기의 전부를 드리기가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왜 그 일로 그토록 분노하다가 급기야는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점을 질문하고 계신다.

가인이 도덕적으로 악을 행했다고 질책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원하지 않았는데 가인은 자신의 땀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바로 죄다. 반면, 아벨은 자신의 땀을 드리지 않았다. ‘선을 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이티브’(תֵּיטִיב)는 히브리어 동사 용법 중 히필 동사다. 우리말로 적절하게 표현하기가 힘든데 억지로 번역하자면 ‘선을 (밖으로 끌어)내다’ 정도다. 인위적으로 선을 끌어내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만약 인간 안에 선이 있다면 그 선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런데 가인을 위시하여 그 누구에게도 그 안에 선이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 그리고 가인에게 그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다. “네가 너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본질상 너로부터는 그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네가 내놓은 선하지 못한 것, 좋지 못한 것을 내가 외면했다고 그것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이나? 네가 얼굴을 떨굴 정도의 일인 것이냐?”

인간에게는 선이 나올 수 없다. 물론 우리들 기준으로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흠리스들을 도와 줄 수도 있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봉사할 수도 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도 있고, 고통받는 자의

편에서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이라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지 않는다.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다.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해서 멀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신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정도면 충분하니 이제 그만 맘을 푸시라고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잘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셨다.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버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은 피흘리는 희생을 요구하신다. 피흘림이 없으면 관계 회복은 없다.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 했다. 그것이 악이다. 인간들이 그렇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은 모태 신앙인이든, 평생 나쁜 짓만 하다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박에는 없다. 선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선은 하나님이 정하시며, 그가 정하신 선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거다.

우리는 어떤가? 가인과 동일한 분노를 지니고 있지는 않는가? 최선을 다해 신앙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는가? 힘든 상황이 점점 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 들 때, 가족 중 누군가가 감당하기 힘든 병으로 신음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 매일 새벽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을 때, 문득문득 하나님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분노는 절망의 끝에서 나오는 몸부림이다. 가인은 이미 벼랑 끝에 서있다. 문제는 그가 그 벼랑 끝으로 제발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자신을 몰고 왔음을 알고 있다. 그 벼랑 끝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별로 없다. 굴러다니는 강통을 발로 냅다 차버린다고 풀릴 문제도 아니다. 지금 가인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그 죄의 갈망함(욕망)이 네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4:7).

하나님은 가인이 무슨 짓을 할 지 이미 알고 계신다. 그가 음모를 철회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고는 공허하게 들린다. 이 말씀은 아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해질지를 알리는 예언이고 경고다. 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바꾼다. 살인자로 살아간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4:8~9)

- (8 절)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קַיִן אֶל-אָבֶל אָחִיו)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죽였습니다.
 (וַיְהִי בַהַיּוֹתָם בַּשָּׂדֶה וַיִּקָּם קַיִן אֶל-אָבֶל אָחִיו וַיַּהַרְגֵהוּ)
- (9 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יְהוָה אֶל-קַיִן)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אַי הָבֶל אָחֶיךָ)
 가인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제가 알지 못합니다. (לֹא יָדַעְתִּי)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הֲשֹׁמֵר אָחִי אֲנִ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결국 가인이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8 절은 그냥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고만 기록하고 있고, 정작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정황으로 보건데 들로 나오라고 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도 장소는 ‘사데’(שָׂדֶה)다. 빈들이라는 뜻이다. 열린 공간을 말한다. ‘사데’는 인간을 위한 공간이자 짐승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 사데는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다. 그 중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사데에서 땀흘려 수고하며 땅을 갈아야 한다. 이처럼 ‘사데’는 유혹이 있는 곳이며 인간의 땀과 수고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사데’의 땅을 경작하여 그로부터 나온 채소를 먹어야 했다(3:18). 그런 ‘사데’에서 가인과 아벨이 만났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 창세기 기자는 유독 동생이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문장 하나 하나마다 동생이라는 말을 집어 넣었다. 그냥 아벨이라고 해도 될 텐데 말이다. 이처럼 형제를 의미하는 ‘아하~’(אָח)를 문장마다 집어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작은 표현에서도 창세기의 숨겨진 묘미를 맛볼 수 있다. 형제 간의 갈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은 그의 동생 이삭을 무시하고 경멸했다. 결국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고 만다. 이삭의 맏아들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그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 했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났다. 야곱의 자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집단 왕따시키고 끝내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팔아넘겼다. 이처럼 창세기는 형제들 간의 갈등을 다루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뒷북을 치신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와 너무 흡사하다. 모든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나타나신다. 그리고는 가인에게 물으신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본 듯한 질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예상대로 뒷북을 치시는데다 그때마다 던지는 질문도 비슷하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무 뒤로 숨은 아담에게 뒤늦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창 3:9).

아담에게 질문했을 때와 비슷한 질문을 이번에는 가인에게 하신다. 다만 찾으시는 대상이 가인이 아니라 동생 아벨이다. 단지 그 차이뿐이다. 하나님은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계신다. 그런데도 가인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가인이 먼저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으려 사죄할 거라고 기대하신 것 같지는 않다.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가인의 회개를 기대한 것도 아니시라면 무엇 때문에 가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질문하신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아버지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가인의 삶에서 아담의 삶이 오버랩되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가인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 받았다. 그의 아버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장본인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선악 판단 기준’이라는 천형이 내려졌다. 그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땀흘려 땅을 일구고,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는 벌을 받았다. 아담의 벌은 그대로 받아들인 가인에게로 이어졌다. 인간은 땅으로부터 얻은 소산으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처럼 땅의 소산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가인은 그점을 간과했다. 그는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거부하신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저주받은 땅에 아벨의 피를 더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아벨의 시신을 찾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다.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다. 자신의 노력을 거부당한 자의 전형적 반응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들의 의로운 삶이 예수님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위선으로 폄하하고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철저하게 무시했던 죄인들을 예수님이 의인으로 격상시켰다. 이런 예수님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유대 사회는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호하려 했다. 말이 유대 공동체지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누가 아벨을 죽이는가? 스스로 자신의 의를 갈고 닦았는데 그 의를 거부당한 사람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인간이 스스로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의를 인정받지 못해 썩썩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한 번도 자기의 의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당신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벨의 피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0~12)

- (10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מָה עָשִׂיתָ)
 네 동생 피의 소리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קוֹל דְּמֵי אָחִיךָ צֹעֲקִים אֵלַי מִן־הָאֲדָמָה)
- (11 절) 이제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וְעַתָּה אָרוּר אַתָּה)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기 위해, 그 입을 벌린 땅으로부터.
 (מִן־הָאֲדָמָה אֲשֶׁר פָּצְתָה אֶת־פִּיהָ לְקַחַת אֶת־דְּמֵי אָחִיךָ מִיָּדֶךָ)
- (12 절) 네가 땅을 경작할 때, 그 땅이 네게 소산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כִּי תַעֲבֹד אֶת־הָאֲדָמָה לֹא־תִסְּרֶךָ תִּתֶּנָּה לָּךְ)
 너는 세상에서 떠돌며 방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וְנָדָה תְהֵיָה בָאָרֶץ)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선악과를 따먹은 가인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저주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가인에 대해 단단히 화가나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저주라는 말을 서슴없이 꺼내셨으니 말이다. 사실 하나님과 ‘저주’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가인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직접적인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다. 가인이 받은 저주는 더 이상 땅으로부터 소산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었다.

히브리어로 피는 **דם(דָם)**이다. 피는 사람이나 동물의 혈관을 통해 모든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은 골고루 운반한다. 그리고 몸 구석구석에 있는 노폐물을 수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성경에서 ‘**דם(דָם)**’은 생명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거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창 9:1~5).

피에 생명이 있다. 육체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고 피가 곧 생명이다. 육체의 근원인 ‘아다마’(**אָדָמָה**) 즉, 흙은 인간이 죽어서 돌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아다마에 아벨의 피가 흘렀다. 아벨의 피는 생명을 가진 채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 보면 아벨을 죽이는데 가인과 아다마가 마치 협력을 한 것처럼 보인다. 11 절을 보면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아다마’는 그 피를 받기 위해 입을 벌렸다. 피가 떨어진 땅은 그 자체로 저주를 받았다. 생명이 피에 있고 그 생명 그대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는 두 가지다.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 소산물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은 땀을 흘리면 흘린 만큼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었다. 가인은 열심히 땅을 일구는 농사꾼이었다. 그런 그에게 땅이 더 이상 아무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가인에게서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진 후 땅은 그나마 인간을 위한 산물을 내어주는 것조차 포기했다. 알다시피 그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땅을 경작해도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가인에게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땅을 잃은 가인은 유리 방향해야 했다. 가인에게 내려진 두 번째 저주다. 어디를 가도 그가 정착할 곳은 없다. 땅이 그에게 삶을 허락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그의 마음 또한 그랬다. 죄 지은 자의 모습이 그렇다. 늘 불안하다. 심하게 타인을 경계한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회초리를 들고 언제든지 징계를 내리는 진노의 하나님일 뿐이다. 그 결과 공의를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고 심판으로 해석한다. 방향의 근본 원인은 사랑의 부재요 은혜의 부재다. 가인이 그랬다.

한 곳에 안착하지 못하는 가인의 삶과 같은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해결된다. 아벨의 피를 받아 인간과 대적 관계가 된 아다마, 인간의 근본 육체를 이루고 있는 그 아다마가 저주에서 풀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피가 필요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내셨다. 그 피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으로 흘러 그 아래에서 망연자실하고 서 있던 인간들의 마음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저주받고 죽었던 그들의 육신은 예수님의 피를 받아 소생했다. 그것이 부활이다. 아벨의 피를 받은 저주받은 ‘아다마’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간들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가 땅의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되돌림이다. 인간의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되돌림이다.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셨다. 물론 되돌리기 위한 대가는 그 무엇보다 가혹했고 처절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으니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화목제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가슴시린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듯하다. 정말 그 복음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려 내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알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받은 은혜로도 부족하여 뭔가를 더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아벨의 피를 받아 저주받은 아다마를 갈고 닦는데 세월을 허송하고 있지는 않은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만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나요? 그 은혜로 이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인의 별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3~14)

- (13 절)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וַיֹּאמֶר קַיִן אֶל־יְהוָה)
 제 죄에 대한 처벌이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גָּדוֹל עֹנִי מִנְשָׂא)
 (14 절) 보소서,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 지면에서 쫓아내시니
 (הֵן גֵּרָשְׁתָּ אֹתִי הַיּוֹם מֵעַל פְּנֵי הָאֲדָמָה)
 주의 얼굴로부터 저는 숨겨질(잊혀질) 것입니다. (וּמִפְּנֵי אָפְתָר)
 그래서 저는 땅에서 떠돌며 방랑하게 되고, (וְהָיִיתִי נֹעַ וְנָד בְּאֶרֶץ)
 누구든지 저를 발견하는 자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וְהָיָה כָּל־מֹצְאֵי הַרְגֵנִ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에 대한 말을 들은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가인의 말은 자신의 별을 감해 달라는 간청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만 있을 뿐이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해 살던 농사꾼이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땅(아다마)으로부터 쫓겨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극도로 불안해 하는 가인의 모습은 어찌면 인간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동생을 죽인 가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보다 좀더 가혹한 별을 내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살인자 가인을 향한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인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윤리 따위나 가르치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 독자들은 가인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 속에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물론 가인과 같은 살인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가인의 삶과 너무도 흡사하다. 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그의 운명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발견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인이 받은 벌로 인해 그가 느낀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주의 얼굴로부터 잊혀진다는 점이다. 더 이상의 하나님과의 소통은 없다.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셨다. 실제로 하나님은 가인 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철저히 외면하셨다. 하나님은 이후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고, 셋의 후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셨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것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그 삶에 더 이상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그가 선을 행하든, 엄청난 업적을 이루든, 세상에 이름을 내든, 개과천선을 해서 멋진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이다. 하나님께 쫓겨나더라도 돌아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잠시의 고통을 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인에게 그럴 가능성은 이제 제로다.

가인의 두 번째 염려는 방황이다. 방황은 단지 정처없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삶이다. 땅에서 떠돌며 방황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 가인이 그토록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했던 이유도, 동생 아벨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싶었던 욕망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잘못된 집착이 있다. 떠돈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누아’ (נָוָה)다. 비틀거리며 흔들리는 모습을 묘사한 말이다. 이 단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사야서를 찾아 보자.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 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릴 같이 흔들렸더라”(사 7:2).

누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뭇가지는 자신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 오직 바람이 그 방향을 정할 뿐이다.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기울어져야 하고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몸이 기울어진다. 바람이 세게 불면 더 심하게 누워야 하고 바람이 그치면 다시 중심을 잡는다. 사실 중심을 잡는다는 것도 그렇다. 계속해서 바람을 맞은 나무는 가지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가인의 삶이 그랬다. 아벨을 죽이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바람은 헛된 소망에 불과했다.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인간들의 삶이 딱 그렇다. 지금 당면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한다. 그러나 삶은 늘 산 넘어 산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생각지도 않은 다른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마음의 닻을 내릴 하나님이 필요한 모양이다.

가인이 마지막으로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었다. 가인은 인류 최초로 죽음을 목도한 사람이다. 그는 최초의 살인자이자 최초의 시신 목격자다. 그는 죽음을 처절하게 경험했다. 돌에 맞아 객사한 아벨의 모습이 어떠했겠는가? 그에게 있어 죽음은 비참한 종말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았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결국 모든 문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히브리서의 말 씬을 가인에게 또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하므로 한 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히 2:14-15).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죽음을 조금은 담담히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죽음이 그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면 기왕이면 사는 동안 지레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쉬을 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가인이 느꼈던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찌 보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실이 삶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가인의 표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5)

(15 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לּוֹ יְהוָה)

그러므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7 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לְכֹן כָּל־הַרְגֵי לֵוֹן שִׁבְעַתַּיִם מַלְאָכִים)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וַיִּשֶׂם יְהוָה לְקֵין אֹת)

그를 발견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לְבִלְתִּי הַכּוֹת־אֹתוֹ כָּל־מַצְאֵה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가인의 우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가인의 죄에 비해 벌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에 동조하고 싶을 정도다. 사실 말뿐인 저주에 더 가깝다. 가인이 신체적으로 구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 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땅을 더 저주하고 가인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다는 선언 외에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진 형벌은 없다. 물론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인과 그의 후손은 영원히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벌은 가인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벌이기도 하다. 가인에게 내리신 벌은 그제 전부가 아니다. 가인의 탄원에 대해 하나님은 가인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하시는 결정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일곱 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어 그를 발견하는 자들이 그들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주셨다. 그는 누구로부터도 공격을 당하지 않을 표를 가졌다. 따라서 누군가 그를 공격하는 자는 엄청난 보복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가인을 건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이토록 호의를 베푸신 것일까? 그가 아벨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잊기라도 하신 걸까? 지금 하나님의 조치는 선한 결정일까?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보여주신 것일까? 인간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공의의 칼을 꺼내는 대신 그에게 갑옷을 입혀주어 보호하는 쪽을 택하셨다. 그렇기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가인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로 인간에게 양보하지 않은 것이다. 보복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복수, 보복을 히브리어로 '나감'(נָקַם)이라 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의미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단어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보복을 할 수 있다. 가인에 대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보복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가인을 해코지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 장 35 절을 인용해 보복에 대해 이렇게 권면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9).

하나님의 율법은 사적인 보복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 레위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8).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복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주시지 않았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어느 누구도 가인을 사적 감정으로 보복할 수는 없다. 가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도 평생을 정처없는 삶, 불안한 삶을 살게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다. 하나님이 가인을 벌주는 방식을 놓고 인간들이 감놔라 배놔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의 방식이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후손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시고자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취한 두 번째 조치는 소위 ‘가인의 표’(mark of Cain)로 알려진 싸인이다. 성경을 읽어 보면 가인의 몸 어딘가에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 표가 어떤 문양인지 그리고 그 표가 어떻게 위력을 발휘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보복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인 그 자체가 ‘표시’의 기능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 즉,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인데 성경 내적인 근거는 희박하다. 어쨌든 가인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한 행위로 정죄되었고(요일 3:12 참조), 그의 길은 멸망의 길이었다(유 11 절 참조). 솔로몬의 이야기로 그의 남은 삶을 상상해보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종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전 9:3).

가인의 표는 이 땅에서의 멸망을 의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저주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얼핏 보면 가인의 표는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그가 끝까지 오래오래 살아 남아 하나님 없는 두려움의 삶이 어떠한지를 뼈저리게 체험케 하신 것 같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땅에는 언제나 악인들이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 그런 악인들 중에는 일생이 평탄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많다. 반대로 의인이 도리어 험난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전 7:15).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이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마냥 부러워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가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는 대신 살아 남아 죽을 때까지 여생을 정처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차원높은 보복이 아니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계심을 어떻게 압니까? 그 보호하심이 가인에게 하신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